

01 2027학년도 학과·계열

무전공, 유형1과 유형2는 다릅니다

이름이 같아 생기는 오해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어느 전형으로 뽑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2027 요강에서 센 **무전공 11,974명 · 40개 대학** — 유형1과 유형2로 갈라서
- ◆ **유형1은 학교 안 거의 전부, 유형2는 그 묶음 안에서만** — 학과 이름으로 알아보는 법
- ◆ 22개 대학이 **둘을 다 둡니다** —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자리
- ◆ 교과·학종·논술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 원서 전 점검표 여덟

01 · 숫자부터

두 가지가 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전공으로 뽑는 데가 늘었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전공」이라는 한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둘이 들어 있습니다. **유형1**과 **유형2**입니다. 이것 가르치 않으면 「무전공 갔다가 원하는 과 못 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세어 보았습니다.

갈래	모집	대학	경쟁률	어디로 갈 수 있나
유형1	4,822명	33	12.3:1	학교 안 거의 전부
유형2	7,152명	29	10.8:1	그 단과대·계열 안에서만

둘을 합치면 **11,974명**, 40개 대학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 수시 전체 모집의 상당한 몫입니다.

차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유형1은 **학교 안의 거의 모든 학과**가 열려 있고, 유형2는 **그 묶음 안에서만** 고릅니다. 학과 이름을 보시면 결이 보입니다 —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자율전공학부」처럼 학교 이름을 달고, 유형2는 「AI인문대학」·「IT대학 자율학부」처럼 **단과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전공 합격」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원서를 쓰기 전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강에 대개 **[유형1]·[유형2]**로 적혀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열리는 문의 크기

	유형1	유형2
이름	자유전공학부 · 자율전공학부	단과대 이름 + 자율전공
뽑을 때	계열 구분 없이	그 계열로
나중에	학교 안 거의 전부	그 묶음 안에서
모집 규모	4,822명	7,152명
대학 수	33곳	29곳

22개 대학이 둘을 다 둡니다. 같은 학교에 유형1 자유전공학부도 있고 유형2 「○○대학 자율학부」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나

대학이 학생을 **학과 없이 뽑도록** 제도가 밀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전부 열어 두면**(유형1) 인기 학과로 쏠려 일부 학과가 비고, **묶음 안에서만 고르게 하면**(유형2) 그 쏠림이 덜합니다.

그래서 **유형2가 수로는 더 많습니다** — 7,152명 대 4,822명입니다. 대학이 **덜 위험한 쪽**을 고른 셈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유형1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대신 인기 학과로 가려는 경쟁이 학교 안에서 벌어집니다. 유형2는 선택지가 좁은 대신 **그 안에서는 덜 다뭉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과에 가고 싶은지가 얼마나 정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뒤에서 그 판단을 다루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유형 구분은 요강 표기를 따랐습니다. 대학이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3 · 어느 전형으로 뽑나

갈래가 고르게 열려 있습니다

무전공은 특정 전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갈래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전형	유형1	유형2	무엇을 뜻하나
학생부교과	61줄	159줄	내신으로 갑니다
학생부종합	35줄	107줄	서류를 읽습니다
논술	26줄	57줄	내신이 약해도 열려 있습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전공은 「학과를 못 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모집 단위일 뿐입니다. 교과로도 뽑고 학종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 내신이면 교과, 서류가 두꺼우면 학종, 글로 푸는 것이 강하면 논술입니다. 무전공이라고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붙은 뒤」입니다. 그것이 이 자료의 핵심이고, 원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경쟁률을 볼 때 조심할 것

무전공 경쟁률 중앙값이 **11.1:1**입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과 견주면 비슷한 자리입니다.

다만 무전공은 모집 인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리에 수십 명, 많으면 백 명 넘게 뽑습니다. 모집이 크면 경쟁률이 안정되고 충원도 많이 돕니다 — 앞서 본 대로 예비번호는 **번호 ÷ 모집 인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전형 갈래는 전형명으로 나눴습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유형1인지 유형2인지 확인합니다	요강의 모집단위 표기
2	유형2라면 그 묶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요강 · 학과 안내
3	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대학 안내 —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4	가고 싶은 과가 그 안에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2인데 가고 싶은 과가 그 묶음 밖에 있으면, 붙어도 그 과에 못 갑니다. 이것 모르고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전공에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이 자리가 **유형1인지 유형2인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유형2라면 **어느 단과대·계열** 의 묶음인가
- ☐ 그 묶음에 **어떤 학과들이** 들어 있는지 목록을 보았는가
- ☐ 가고 싶은 과가 **그 목록에 있는가**
- ☐ **배정 시기** 가 언제인가 — 1학년 말인가 2학년인가
- ☐ 배정에 **성적이 쓰이는가**
- ☐ 인기 학과에 **정원 제한** 이 있는가
- ☐ 못 가게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았는가

뒤의 넷은 **요강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나 입학처에 물어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그 확인법을 다룹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공을 「일단 들어가고 보자」로 쓰지 마십시오.** 상담에서 이 말이 편합니다 — 선택지가 늘어난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유형2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 유형1도 인기 학과는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를 확인하고 쓰시면 좋은 자리이고, 확인 없이 쓰면 학교만 정하고 학과는 운에 맡기는 셈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무전공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무전공이 합격선이 낮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개별 학과의 합격선을 신지 않고, 무전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전공은 모집 인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크면 합격선이 넓게 퍼지고 총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 학과보다는 낮고, 비인기 학과보다는 높은」 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교 전체 평균에 가깝다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낮아 보인다고 노리는 자리로 삼지는 마십시오. 낮은 이유가 「나중에 원하는 과에 못 갈 수 있어서」 인 경우가 있습니다.

Q. 의대나 사범대도 무전공으로 갈 수 있나요?

대개 안 됩니다. 유형1이라도 빠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흔히 빠지는 것은 의약학 계열, 사범대, 예체능입니다. 따로 뽑아야 하는 까닭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 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자격 과정이 붙어 있거나, 실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자유전공이니까 다 갈 수 있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학과 목록이 요강이나 학사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과가 그 목록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 데 십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십 분이 4년을 정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무전공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유형1인지 유형2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야 유리한지 아닌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신지 않습니다. 유형 구분과 배정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요강과 학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